

## 확진보다 무서운 낙인? 유행시기별 코로나19 보도 헤드라인에 나타난 낙인 양상 분석

오준혁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석사과정\*

이보윤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석사\*\*

최미연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박사과정\*\*\*

최윤형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국의 사회동향 조사(2020)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은 코로나19 확진보다 코로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감염병 낙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코로나19 발생 첫 1년(2019년 12월 31일~2021년 1월 31일)의 기간 동안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에 나타난 코로나19 보도를 내용 분석하였다. 해당 시기 주요 사건, 방역 정책, 정부 메시지, 감염자 및 사망자 수 등 맥락을 포함한 5개의 유행시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 헤드라인 중 66.5%에서 낙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낙인 표현은 전 유행시기에 걸쳐 꾸준히 60%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 가장 빈번히 사용된 낙인 요소는 공포감유발(53.6%), 라벨링(28.9%), 책임귀인(16.2%), 표시(1.3%) 순으로 나타났으며 낙인 표현의 주된 대상 및 내용은 유행시기별 주요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역 정책의 변화, 정부 메시지 등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집단에게 코로나19 관련 낙인 표현이 집중된 패턴이(예: 신천지, 이태원 관련, 교회) 확인되기도 했다. 본 연구는 감염병 보도에서 반복되는 낙인요소를 비교적 긴 스펙트럼으로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법적·자율적 규제의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EY WORDS** 낙인 • 코로나19 • 낙인 커뮤니케이션 모델 • 감염병 보도 • 언론 • 방역 정책

\* 제1저자, jhyeok@hanyang.ac.kr

\*\* 공동저자, dldud2012@naver.com

\*\*\* 공동저자, mychoi83@hanyang.ac.kr

\*\*\*\* 교신저자, yoonhyeung@hanyang.ac.kr

# 1. 서론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비교적 감소했지만, 여전히 감염자에 대한 낙인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분열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Bagcchi, 2020). 감염병 보도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낙인 표현은 감염자 및 감염병에 대한 공중의 분노와 공포, 혐오를 유발하여 사회 분열과 방역 정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김대현, 2022), 감염에서 회복된 후에도 감염자 및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이익 등 낙인의 장기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Muhidin, Vizheh & Moghadam, 2020). 낙인은 부정적인 차이점을 가진 대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타자(undesirable other)’로 분류해 사회적으로 불신하는 태도 또는 행동으로(Goffman, 1963), 질병의 경우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낙인을 부여 받아 왔다. 특히, 전염성이 있는 감염병의 경우 그 영향력이 치명적이고 타인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낙인화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Williams & Gonzalez-Medina, 2011).

과거 신종 감염병을 겪으며 2012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감염병 보도 준칙이 만들어지고 감염인 신상에 관한 보도에서 차별이나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을 지양할 것을 강조 했으나, 감염병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실제 기사에 반영되지 못하고 선언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유진, 2021). 실제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우리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난, 마녀사냥 등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경기연구원, 2021), 그 주된 원인으로 언론이 지목됐다(손달임, 2020; Feng & Cheng, 2020; Dhanani & Franz, 2021).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코로나19 낙인이 실재하며 그 실태가 매우 심각함을 밝혔으나(박희진 외, 2021; 우미원 · 이종윤 · 전종우, 2021; 장이츠 · 김민아, 2021; Zeng, 2021; 김민아 · 성지민, 2022), 언론 보도 속 낙인 양상을 방역 정책, 주요 이슈 등 유행시기별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언론이 공중의 위협 인지 및 예방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최윤희 · 신경아, 2012),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 언론이 공중의 주요 정보채널로 기능하고 위협 인식, 여론형성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김원제 외, 2009; 안은영, 2016)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 보도에 나타난 낙인 양상을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낙인 커뮤니케이션 모델(Model of Stigma Communication, MSC)을

분석틀로 활용해, 코로나19 발생 첫 1년(2019년 12월 31일~2021년 1월 31일)의 기간 동안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에 나타난 낙인 양상을 내용 분석하였다. 특히, 해당 시기 주요 사건, 방역 정책, 정부 메시지, 감염자 및 사망자 수 등 맥락을 포함한 5개의 유행시기를 구분해, 주요사건, 방역 정책 등의 변화에 따른 낙인 양상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감염병을 겪으며 매번 반복되어 온 언론의 낙인화 문제를(안중주, 2020.03.22) 1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을 통해 분석해 낙인 양상의 스펙트럼을 잘 확인 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추후 감염병 보도에 대한 법적·자율적 규제의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문헌고찰

### 1) 코로나19 언론 보도와 낙인

언론이 공중의 위험 인지 및 예방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위험 관련 연구에서 잘 알려져 있다(최윤희·신경아, 2012).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위험 정도가 알려져 있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 언론은 공중이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위험 대처 정보를 얻는 중요한 정보 채널이며, 위험 인식, 예방 행동, 여론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김원제 외, 2009; 안은영, 2016)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도가 요구된다(이정춘, 1996).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 보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언론은 정보 전달이라는 긍정적 역할 뿐 아니라 자극적, 편파적 보도로 공포를 증폭시키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 혐오, 차별 등 부정적 결과 또한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철주·임인재, 2020; 표시영·정지영, 2021). 슬로빅(Slovic, 1987)은 위험 사안이 미디어 보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강도 높고 과장된 보도가 사람들의 위험 인지를 높이는 기폭제로 작용해 인식 및 행동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할라한(Hallahan, 1999) 또한 언론 보도에 나타난 사건의 해석과 구성이 메시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 또한 감염병 보도와 오랜 관계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염병 보도 양상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유발되고, 이러한 감정은 특정 대상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차별하게 하는 낙인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Smith, 2007). 실제로 2015년 유행한 메르스 사태 당시, 언론은 헤드라인에 ‘중동의 공포’같은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각종 수치를 단순 나열해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키웠으며(이귀옥, 2015), 사스(SARS) 때에도 단순 의심 환자를 사스 환자로 단정짓거나, 사스가 중국에서 발병했다는 이유로 모든 중국 방문자를 잠재적 사스 환자인 것처럼 낙인찍는 마녀사냥식 보도나 추정 보도를 통해 과장된 두려움과 낙인을 유발시켰다(박정의, 2003; 안종주, 2003). 이러한 보도 양상은 코로나19에서도 빈번히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낙인찍기식 보도 경향이 기존 감염병 보도에 비해 두드러졌다는 결과가 보고됐다(손달임, 2020). 코로나19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보도 프레임을 사용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부정적 태도 및 감염 책임을 증가시켰고(Dhanani & Franz, 2021),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등 질병을 국가, 지역 명으로 보도해 해당 국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증가시켰다(Feng & Cheng, 2020). 실제로,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1년간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가 약 4천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의길, 2021.03.17).

한편, 언론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예방 정보보다 환자 개인의 책임이나 개인 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를 통해 개인 정보 공개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불안, 두려움, 낙인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있다(손달임, 2020). 추지현(2021, 김보영, 2021.05.10에서 재인용)은 이를 ‘감염병의 범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감염병의 범죄화를 통해 감염병의 ‘위험인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할 명분을 제공했다고 설명한다. 이완(2020) 또한, 한국 사회와 언론은 확진자를 마치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하고 과도한 비난을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교인들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 받으면서, 집단감염의 주범으로 언론과 사회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최혜인, 2022.08.12). 특히 신천지 관련 감염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안 떨치고 일상생활 하라”고 권장(김혜란, 2020.02.12)했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라 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낙인표현이 포함된 감염병 보도는 감염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해 완치 판정 이후에도 환자 및 가족들에게 사회적, 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김대현 2022). 메르스 감염자 대다수가 완치 1년이 지난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한 바 있으며(정석준 2021.06.19), 코로나19 낙인 경험이 생존자의

다양한 정신건강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Campo-Arias et al., 2022; Huang, Sun, Zhang, Lu & Chen, 2022; Owusu et al., 2021; Park et al., 2020). 더 심각한 점은, 감염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위험인자로 구분되어 차별이나 낙인의 대상이 되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감염병 낙인이 검진 기피라는 방역 문제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확진자라는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비난받거나 낙인찍히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최경준, 2020.07.01), 국민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난, 마녀사냥 등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 2021). 이러한 감염병의 범죄화 및 낙인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범죄화하여 감염의 구조적 요인을 은폐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추지현, 2021, 김보영, 2021.05.10에서 재인용). 즉, 어떤 사람들이 왜 감염에 취약한지, 방역 및 출입국 정책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나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당사자만을 낙인찍고, 범죄화하는 것은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만들고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병 문제 해결의 근본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태원 클럽관련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감염과 무관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인화와 함께 차별과 혐오가 생산되어 검사를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송경화, 2020.05.10; 윤인경, 2020.05.26). 이처럼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과도한 책임귀인, 라벨링, 공포 조장은 혐오와 분노로 이어져, 사회의 분열을 유발하고 방역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표시영·정지영, 2021).

코로나19 완치 1년이 지난 후에도 가장 힘든 점이 코로나19 환자 낙인이라는 조사 결과는(장아름, 2021.01.13), 감염병 인식,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이 감염병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이를 통해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 2) 낙인 요소에 관한 선행연구

낙인이란 부정적인 차이점을 가진 대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타자(undesirable other)’로 분류해 사회적으로 불신하는 태도 또는 행동으로(Goffman, 1963),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장소, 제품 등에 부여되는 표시이다(Goffman, 2009). 감염병은 위협의 정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류현숙, 2020), 나도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감염자를 위협 요소로 판단해 낙인과 혐오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윤아, 2020.03.19).

낙인과 혐오는 감염병(자)에 대한 인식,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쳐(유선옥 외, 2014; 백혜진, 2017), 사회분열,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감염병 보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변인으로 주목되어 왔다.

낙인 구성 요소를 미디어 메시지에 적용한 낙인 커뮤니케이션 모델(Model of Stigma Communication, MSC, Smith, 2007)에 따르면, 낙인은 집단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Neuberg, Smith, & Asher, 2000; Smith, 2007a, 2014) 크게 메시지 선택(Message Choices), 메시지 반응(Message Reactions), 메시지 효과(Message Effects)로 구성된다. 메시지 선택에서는 낙인 요소의 유형을 제시하는데, 표시(Mark), 라벨링(Group Labeling), 책임귀인(Responsibility), 공포감유발(Peril)이 사람들에게 인지적,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인지적 반응에는 사회적 태도 및 고정관념이 포함되고, 감정적 반응의 경우 혐오감, 분노, 두려움 등이 포함된다(Smith, 2007). 이러한 낙인 요소는 간접적으로 메시지 반응을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메시지 효과를 유발하는데 낙인 태도를 공고히 하거나, 낙인 찍힌 대상을 격리 및 제거하고, 낙인 메시지를 공유하는 형태의 메시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Smith, 2007). 실제로, 확진자 및 감염병에 대한 혐오, 두려움, 분노는 사회적 위협을(예: 감염자)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정당화하여, 특정 대상을 낙인찍거나 사회에서 분리시키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은 메시지 선택, 즉 신문보도에 나타난 낙인 요소 유형에 있으므로 스미스가 제시한 메시지 선택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낙인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시는 겉으로 드러난 일반적이지 않은 속성으로, 낙인 대상이 사회와 구분되는 지점이며(Link & Phelan, 2001), 이를 통해 특이 속성을 가진 대상이 빨리 인식되고, 사회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Smith, 2007). 즉, 공중은 표시를 통해 낙인화 된 대상을 식별하고 그 반응으로 혐오감을 일으켜 낙인화 된 대상을 피하거나 격리시키는 행위를 보일 수 있다(Smith, 2007). 중국이 발생지로 알려진 사스 유행 당시, 아시아인 옆자리나 아시아인이 있는 식당을 기피하고, 공공장소에서 아시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이 나타났는데, 이는 아시아인 자체가 감염병 표시로 인식되어 낙인화 된 예이다(장이츠·김민아, 2021). 한편, 국내의 경우는 다수의 국민에게 기침이 코로나19 환자의 표시로 인식되어 지하철이나 식당에서 기침을 할 경우 가까운 시선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운아, 2020.03.19). 이러한 표시에 의한 낙인은 증오범죄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데, 2020년 미국 연방수사국(FBI) 증오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2019년 158건에서

2020년 27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한솔, 2022. 10. 01), 미국 내 아시아인 증오 범죄 전담 웹사이트가 개설되거나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이 발효되기도 했다(국제엠네스티, 2021; 김서정, 2021.02.26).

두번째로 책임귀인은 낙인화 대상이 가진 부정적 속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그 대상에게 귀인하는 것(유선옥 외, 2014)으로 행동통제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Deaux et al., 1995). 감염병 보도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책임의 원인으로 묘사하는 경우, 그 대상의 부도덕한 신념이나 태도, 규칙 위반과 같은 행동에 대해 더욱 강한 처벌을 요구하게 될 수 있다(Smith, 2007). 최근 코로나19 관련 연구에서 책임귀인이 포함된 보도가 그렇지 않은 보도에 비해 분노, 혐오, 낙인태도를 더 강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Zeng, 2021), 특히,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귀인하는 경우 분노가 더 높아지며 처벌 정책 지지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최종혁 · 소지연, 2021). 개인에게 책임을 귀인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한 뜻으로 예방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방 수칙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홍다예 · 전민아 · 조창환, 2021). 감염병 보도에서 책임귀인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로 번지게 하거나 불안을 극복할 희생양을 찾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하며(이성진, 2020.03.03), 감염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혐오 범죄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Riyasad, 2020), 치료 및 확산을 어렵게 하는 등 방역 정책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라벨링은 낙인적인 집단을 특정 표현으로 명명하거나 일종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으로(이인옥 · 이은옥, 2006; Smith, 2007), 감염병 및 정신질환 분야에서 자주 다뤄져 왔다. 예를 들어, 감염자와 질환자를 ‘위험한 사람’ 또는 ‘사회적 범죄자’로 이름 붙여 차별하거나 구별시키는 것으로(Bedi, 2020; Mehra, 2020), 환자뿐 아니라 의료계 관계자, 감염자 가족까지 라벨링 대상이 될 수 있다(Bhattacharya et al., 2020). 메르스 당시 ‘초기감염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특정 환자가 메르스를 국내에 들여와 퍼뜨린 것처럼 묘사한 경우나(진나영 · 정정주, 2018) 감염 추정 환자에게 ‘사스 감염자’, ‘사스 양성반응자’라는 꼬리표를 붙여 마녀사냥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안종주, 2003; 이성주, 2003).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우한폐렴’이라던지, ‘31번 환자’, ‘용인 66번’, ‘슈퍼전파자’라 명명해 혐오를 부추긴 경우가 라벨링의 예시로 알려졌다(변진경, 2020.05.26; 박성진, 2021).

마지막으로 공포감유발은 감염병이나 감염 환자를 물리적 또는 사회적 위협으로 묘사해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으로(Smith, 2007; 양정은, 2015), 감염병 보도에서 주된 낙인화 기

재로 사용되고 있다. 사스의 경우 ‘21세기 흑사병’, ‘괴질’, ‘비상’과 같은 표현으로 공포감을 증폭시킨 예가 있고(이성주, 2003; 황상익, 2004),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당시에는 ‘공포’, ‘패닉’과 같은 자극적 표현 사용, 사망자 숫자를 지나치게 강조해 공중의 불안과 공포심을 자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송해룡·조항민, 2015; 허용강 외, 2015). 메르스의 경우 ‘긴급 재난 1호 상황’, ‘전염 잘 되고 치사율 무려 40%’라는 식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실제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공포가 조성된 바 있고(이준영·허우철·한미정, 2019), 이러한 패턴은 코로나19 보도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고되었다(예: 하루 1000명 쏟아질 대유행 올 수도, 신규 확진 연일 50명 초과)(손달임, 2020; 박주현, 2020).

최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다소 또는 매우 심하게 있다고 응답했으며, 코로나19 감염 환자에 대한 비난이나 마녀사냥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주요 요인으로 언론(45.3%)을 지목했다(경기연구원, 2021). 이는 감염병 보도에 나타난 낙인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로 판단된다.

### 3) 시기별 코로나19 언론 보도 분석

코로나19 보도 선행연구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및 전개를 유행시기별로 나누어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박주현, 2020; 김태중, 2020; 함승경·김혜정·김영욱, 2021). 박주현(2020)의 경우 국내 확진자 발생 관련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발생-확산-대유행의 3단계로 구분하여 언론사의 이념 성향에 따른 보도 프레임 양상을 분석했다. 보수 언론사는 발생기와 확산기에 정부 대응과 평가에 집중한 반면 진보 언론사는 발생기와 대유행기에 감염병의 지역 사회 확산, 확산기에는 정책에 따른 갈등에 집중한 양상을 보였음을 보고하였다(박주현, 2020). 김태중(2020)의 연구에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3월 11일을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개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관심 단계의 경우 정부 대응이 주를 이뤘고, 우한에서의 감염 확산 및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주의 단계에서는 중국의 감염병 확산 내용이, 대구 신천지 교회 중심의 국내 확진자가 증가한 경계 단계에서는 대구 경북지역 중심 확진자 보도가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중, 2020). 함승경, 김혜정, 김영욱(2021)도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의 기사를 유행시기 및 언론사 정치 지향에 따라 분석하



었다. 그 결과, 유행시기와 언론사의 정파성에 따라 의제 집중이 보수 언론사는 경제 위기 및 정부 대응, 진보 언론사는 정부 지원 및 해외 감염 현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함승경 · 김혜정 · 김영옥, 2021).

선행연구를 보면, 언론사가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유행시기와 유행시기별 발생한 주요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박주현, 2020; 김태중, 2020; 함승경 · 김혜정 · 김영옥, 2021).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같은 시기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론이 어느 이슈에 관심을 두고 어떤 개인 · 집단을 집중 보도하는 지(혹은 어떤 이슈와 집단을 제외 시키는지) 따라 낙인과 혐오, 분노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Thomas et al., 2020), 시기별 발생한 주요 감염 이슈(들), 정부 정책, 방역 정책 등 다양한 맥락을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 발생한 신천지 중심의 감염 보도 양상이나, 같은 시기(4차 유행: 2020년 8월 12일 ~ 2020년 11월 12일)에 일어난 여러 주요 이슈(예: 사랑제일교회 중심 감염(2020.09.12), 광화문 보수집회(2020.08.15), 민주노총 집회(2020.08.15)중 어느 이슈, 집단에 집중된 보도 패턴이 나타나는지 등 맥락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행시기별 주요 사건(triggering issue),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정부의 방역 정책,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메시지, 감염 환자 및 사망자 수를 시기별로 함께 정리해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낙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3.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코로나19 보도 헤드라인에서 전체 유행시기(1기~5기)를 관통하는 낙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유행시기별 코로나19 보도 헤드라인에 나타난 낙인 요소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1. 유행시기별 공포감유발 사용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2. 유행시기별 라벨링 사용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느 집단/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2-3. 유행시기별 책임귀인 사용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느 집단/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2-4. 유행시기별 표시 사용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코로나19 보도 헤드라인에 나타난 낙인화 양상은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감 추이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유행시기별 헤드라인에 나타난 낙인 요소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에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 1) 분석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첫 1년여 기간(2019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감염병 유행 초기에는 방역에 대한 무력감과 감염에 대한 집단 공포로 감염자를 낙인 찍고 비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김대현, 2022), 첫 1년여 기간이 낙인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시기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두 달에서 반년 정도의 기간을 주로 살펴본 선행연구(박주현, 2020; 김태종, 2020; 함승경·김혜정·김영욱, 2021)에 비해 다양한 보도 양상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염병 보도에서 반드시 살펴 봐야 할 유행시기별 낙인 요소의 사용양상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채우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질병관리청(2020, 2021)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 발생 현황을 가이드 삼아 12월 31일부터 2021년 1월 31일 동안 국내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수를 그래프로 정리하였다(〈그림 1〉 참조). 이후 코로나19 주요 일지(이은혜, 2021)를 기준으로 선행연구(진명지·이서현·최낙진, 2020; 권나현·최윤희, 2022)를 참고하여 주요 사건, 방역 정책, 정부 메시지를 선별해 이를 바탕으로 유행시기를 1기부터 5기까지 분류하였고(〈표 1〉 참조), 이를 통해 유행시기별 주요 사건, 정부 및 방역 정책 변화에 따라 낙인 양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내 주요 일간지의 코로나19 관련 뉴스 기사로,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의 ‘2021 신문잡지 이용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 열독률 기준 상위 다섯 곳과 경제지를 포함, 총 여섯 개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경향신문)를 포함하였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한국언론재단의 뉴스기사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BIG KINDS, <http://www.kinds.or.kr>)에서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월 31일까지 1년 1개월동안 작성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4개의 키워드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초기에 사용된 ‘우한 폐렴’을 추가하여 검색한 후 기사를 수집했다(박주현, 2020). 수집된 기사의 수는 총 186,094개였으며, 스크리닝을 통해 단순 홍보성 기사 등을 제외하고 52,305개의 기사를 추출하였다. 이후 헤드라인을 내용분석한 선행연구(신진욱, 2007; 박종민·조의현·곽은경, 2008)를 참고해 체계적 무작위 표집(systematic random sampling)하여 전체의 7%에 해당하는 3,672건의 기사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Riffe, Aust & Lacy, 1993).

분석 단위는 코로나19 보도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보급 이후 인터넷 포털에 노출된 헤드라인만으로 뉴스를 접하는 것이 뉴스 소비의 대세가 되어 헤드라인의 중요도가 크게 올라갔고, 헤드라인 자체가 독립된 저널리즘으로 작용하면서 뉴스 소비자의 인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선진 2010; 이준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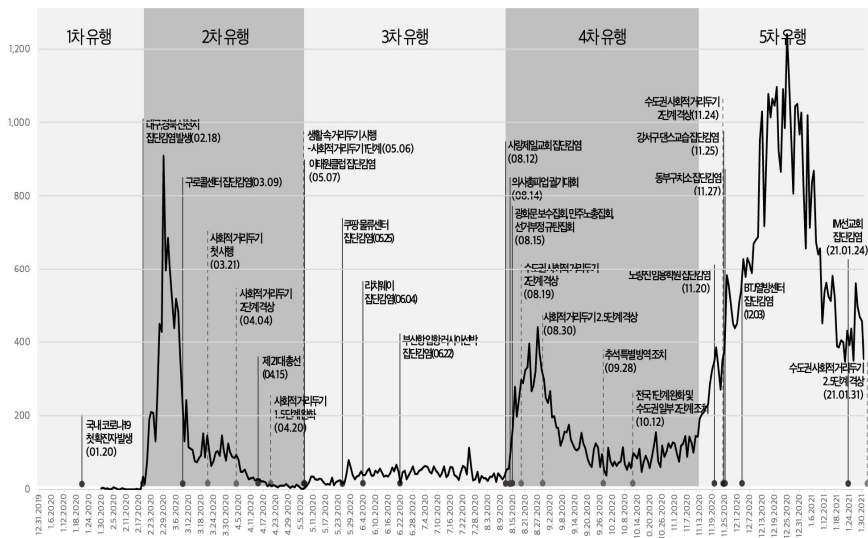


그림 1. 유행 시기별 확진자 추이 및 주요 이슈 그래프

표 1. 유행 시기별 주요 사건, 방역 정책 및 확진자 수

유행 시기	확진 수	사망 수	주요 사건	방역 정책 이슈	정부 메시지
2019년 12월 31일 ~ 2020년 2월 17일					
1차 유행	30	0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 (2019.12.31) -중국 등 해외 입국자 위주로 확진 (2020.01.03)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 (2020.01.20)	사회적 거리두기 없음	대통령 “정부 믿고 과도한 불안 자제” (20.01.26) 정부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20.01.27) 정부 “코로나19, 집단행사 무조건 취소할 필요 없어” (20.02.12) “코로나 불안 떨치고 일상활동 하라” (20.02.12)
2020년 2월 18일 ~ 2020년 5월 5일					
2차 유행	10,774	254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2020.02.18) -구로콜센터 집단 감염 (2020.03.09) -4.15 제 21대 총선 (2020.04.15) -한국기차협회 감염병정보도 준칙 발표 (2020.04.28)	사회적 거리두기 첫 시행 (20.03.21)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및 연장 (20.04.04)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20.04.20)	“중국입국금지 불허” (20.02.24) “입국자 전체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20.03.17) 무급휴직자 생활안정금 지원 (20.03.30) 1차 긴급재난지원금 (20.05.04)
2020년 5월 6일 ~ 2020년 8월 11일					
3차 유행	3,856	51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2020.05.07)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2020.05.25) -리치웨이 기업 집단 감염 (2020.06.04)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 (2020.06.22)	생활 속 거리두기(1단계) 시행(20.05.06)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통일, 3단계 구분제 시행 (20.06.28)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6.01) 특별 여행주간 시행 (20.07.01) 8대 분야 할인 소비 쿠폰 제공 (20.07.30)
2020년 8월 12일 ~ 2020년 11월 12일					
4차 유행	13,280	182	-사랑제일교회 중심의 집단 감염 (2020.08.12) -의사 총파업 결기 대회 (2020.08.14) -광화문 보수집회 (2020.08.15) -민주노총 집회 (2020.08.1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0.08.16)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0.08.2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20.08.30)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격하 (20.10.12)	2차 긴급 재난지원금 (20.09.22) “개천질 집회 반쯤없이 차단” (20.10.05) “거리두기 하향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신감” (20.10.12) “빠른 경제 회복 기대 소비 동참해달라” (20.10.26)
2020년 11월 13일 ~ 2021년 1월 31일					
5차 유행	50,257	933	-노랑진 임용학원 집단 감염(2020.11.2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0.11.24)	“우리도 늦지 않게 코로나 백신 접종 준비 잘 하고 있다” (20.12.22)

유행 시기	확진 수	사망 수	주요 사건	방역 정책 이슈	정부 메시지
			-강서구 댄스 교습학원 집단 감염 (2020.11.25) -동부구청소 집단 감염 (2020.11.27) -BTJ 열방센터 집단 감염 (2020.12.03) -IM선교회 및 산하 교육 시설 집단 감염 (2020.12.24)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20.12.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비수도권 2단계 격상 (20.12.8)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기간 (20.12.24 ~ 21.1.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20.1.31)	文대통령 경제 방역 자화자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21.01.06) 3차 긴급재난지원금 (21.01.11)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21.01.11)

Note. 권나현, 최윤형(2022) 표 재구성

## 2) 분석유목

본 연구의 분석 유목은 ‘책임귀인’, ‘표시’, ‘라벨링’, ‘공포감유발’로(Smith, 2007) MSC 활용 선행연구(차유리·나은영, 2012; 유선옥 외, 2014; 양정은, 2015; 김영옥·박단아·김수현, 2018; 김혜원·양혜진, 2021; Kumble & Diddi, 2021; Ledford et al., 2021)를 수정 및 보완하여 조작 정의하였다. 하나의 헤드라인에서 두 가지 이상의 낙인 요소가 나타난 경우 중복 코딩하였고, 낙인이 사용되지 않은 헤드라인의 경우 ‘낙인 요소 없음’으로 코딩하였다. 각 낙인 요소별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 (1) 책임귀인(Responsibility attribution)

책임귀인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로 조작하였다(Smith, 2007; 차유리·나은영, 2012; 유선옥 외, 2014; 김영옥·박단아·김수현, 2018; 김혜원·양혜진, 2021; Kumble & Diddi, 2021; Ledford et al., 2021). 주로 방역 수칙 위반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슈퍼전파자, 무단이탈자, ‘~발 감염’, ‘~탓 감염’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전가하는 헤드라인을 포함한다. 책임귀인의 경우, 귀인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므로(Smith, 2007; 2012) 특정 집단, 개인에 대한 차별, 혐오 및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Thomas et al., 2020) 책임귀인에 해당하는 헤드라인의 경우 귀인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세부 코딩하였다(행정주체, 지역, 종교, 공공시설, 기업, 유흥시설, 집회, 정당 및 소속인, 개인, 의료, 다중이용시설, 기타).

## (2) 표시(Mark)

표시는 겉으로 보여지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나 후유증(기침, 재채기 등)을 언급한 경우로 정의하였다(Smith, 2007; 유선옥 외, 2014; 김영옥·박단아·김수현, 2018; 김혜원·양혜진, 2021; Kumble & Diddi, 2021; Ledford et al., 2021).

## (3) 라벨링(Labeling)

라벨링은 특정 대상을 코로나19와 관련된 표현으로 칭하여 부정적, 일반적이지 않은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로 조작하였다(Smith, 2007; 유선옥 외, 2014; 양정은, 2015; 김영옥·박단아·김수현, 2018; 김혜원, 양혜진, 2021; Kumble & Diddi, 2021; Ledford et al., 2021). 확진자, 격리조치자, 우한폐렴, 대구폐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 환자에 대한 성별, 거주지, 직업, 종교 등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 역시 해당 감염 환자에게 ‘확진자’ 라벨을 붙이도록 유도하는 것(박미정, 2016; WHO, 2020)이라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라벨링으로 분류하였다. 라벨링 대상 또한 편견과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어(Link & Phelan, 2001; Smith, 2007; 2012), 라벨링으로 분류된 헤드라인의 경우, 대상이 되는 집단을 세부 코딩하였다(행정 주체, 지역, 종교, 공공시설, 기업, 유흥시설, 집회, 정당 및 소속인, 개인, 의료, 다중 이용시설, 기타).

## (4) 공포감유발(Peril)

공포감유발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사망, 경제 악영향 등)을 강조해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Smith, 2007; 차유리·나은영, 2012; 유선옥 외, 2014; 양정은, 2015; 김영옥·박단아·김수현, 2018; 김혜원·양혜진, 2021; Kumble & Diddi, 2021; Ledford et al., 2021). 주로 쇼크, 빠르게 확산, 패닉, 무더기 감염 등과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자 및 사망자 수, n차 감염과 같이 숫자를 나열해 공중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손달임, 2020)표현도 공포감유발로 코딩하였다.

표 2. 낙인 요소별 조작적 정의 및 예시

낙인 요소	조작적 정의
책임귀인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 e. g. '클럽발 감염 여파', '리치웨이발 확산'
표시	겉으로 보여지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나 후유증(기침, 재채기 등)을 언급한 경우 e. g. '발열 증세', '코로나 증상'
리벨링	대상을 코로나19 질병 관련 표현으로 칭하여 부정적, 일반적이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e. g. '16번 확진자', '슈퍼전파자', '우한떼렴'
공포감 유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사망, 경제 악영향 등)을 강조해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우 e. g. '코로나 지뢰밭', '누적확진 1035명', '감염이 21.5% 최고치'

### 3) 코딩 절차 및 코더 간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공 대학원생 두 명이 코딩을 진행했다(Wimmer & Dominick, 2005). 먼저 코딩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코더 훈련이 이뤄졌으며, 훈련 이후 샘플의 약 10%(n=370)를 무작위 추출하여 1차 파일럿 코딩(pilot coding)을 실시하였다. 파일럿 코딩은 '헤드라인 속 낙인 존재 유무'와 '헤드라인에 나타난 낙인 요소' 두 가지 항목으로 진행하였는데, 크리펜도르 알파(Krippendorff's alpha) 분석 결과 신뢰도는 각각 0.742와 0.645로 나타났다. 1차 파일럿 코딩 이후 서로 다르게 코딩한 항목에 관해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뤘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와 코딩 항목을 보완하였다. 보완 후 1차 파일럿 코딩에 사용되지 않은 샘플 370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2차 파일럿 코딩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최종 코더 간 신뢰도는 0.845와 0.81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크리펜도르 알파(Krippendorff's alpha) 계수는 다른 신뢰도 측정 지수들에 비해 코딩 카테고리 수, 코더 수, 코딩 데이터 척도 유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내용분석 데이터의 신뢰도 측정에 널리 쓰이고 있다(Lombard et al., 2002; Hayes & Krippendorff, 2007). 코더 간 신뢰도 확인 후, 전체 표본인 3,672건의 헤드라인을 코더 두 명이 나누어 본 코딩을 진행하였다.

## 5. 연구결과

### 1) 기초통계분석

유행시기별 코로나19 관련 기사 건수를 살펴본 결과, 중앙일보가 836건(22.8%)으로 6개 언론사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조선일보(727건, 19.8%), 매일경제(716건, 19.5%), 동아일보(522건, 14.2%), 경향신문(480건, 13.2%), 한겨레(391건, 10.7%)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사는 2차 유행시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다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3〉 참조).

표 3. 언론사별 코로나19 관련 기사 보도 건수

언론사 N(%)	유행시기					합계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4차 유행	5차 유행	
중앙일보	50 (23.4)	292 (24.7)	157 (20.0)	162 (19.8)	175 (25.7)	836 (22.8)
조선일보	46 (21.5)	220 (18.7)	229 (29.3)	131 (16.1)	101 (14.8)	727 (19.8)
매일경제	43 (19.6)	251 (21.4)	142 (18.1)	180 (22.1)	100 (14.7)	716 (19.5)
동아일보	39 (18.7)	167 (14.1)	90 (11.5)	116 (14.3)	110 (16.2)	522 (14.2)
경향신문	16 (7.5)	123 (10.4)	94 (12.0)	140 (17.3)	107 (15.7)	480 (13.2)
한겨레	20 (9.3)	126 (10.7)	73 (9.2)	84 (10.3)	88 (12.9)	391 (10.7)
합계	214 (5.8)	1179 (32.1)	785 (21.5)	813 (22.1)	681 (18.5)	3672 (100.0)

Note.  $\chi^2(20)=113.892, p=0.001$

### 2) 〈연구문제 1〉의 결과: 코로나19 보도 헤드라인에서 전체 유행시기 (1기~5기)를 관통하는 낙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전체 유행시기에 걸쳐 코로나19 기사 헤드라인의 낙인 양상이 어떻



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연구에 포함된 총 3672건의 헤드라인 중 낙인이 사용된 헤드라인은 2443건(66.5%)으로 전체 3분의 2 이상의 헤드라인에서 낙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낙인 표현이 사용된 헤드라인은 1차 유행시기 79.0%, 2차 유행시기 65.4%, 3차 유행시기~5차 유행시기까지 60%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며 증감 추세를 보였다 (<표 4> 참조).

표 4. 유행시기별 낙인표현이 사용된 코로나19 헤드라인의 빈도

N (%)	유행시기					합계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4차 유행	5차 유행	
총 헤드라인의 수	214	1179	785	813	681	3672
낙인 요소 포함된 헤드라인의 수	169 (79.0)	771 (65.4)	519 (66.1)	561 (69.0)	423 (62.1)	2443 (66.5)

다음으로 낙인 표현이 포함된 2443개의 헤드라인에서 3471건의 낙인 요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중복코딩) 낙인 표현을 포함 한 헤드라인 하나 당 평균 1.4건의 낙인 요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감유발 요소가 1860건(53.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라벨링(1002건, 28.9%), 책임귀인(562건, 16.2%), 표시(47건, 1.4%) 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 3) <연구문제 2> 유행시기별 코로나19 보도 헤드라인에 나타난 낙인 요소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에서는 유행시기별 낙인 요소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공포감유발은 1차 유행시기(43.8%)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라벨링은 1차 유행시기(40.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후 대체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시 역시, 1차 유행시기(4.1%)에 가장 높게 나타난 후 1% 내외를 유지하였고 책임귀인은 다른 낙인 요소와 달리 5차 유행시기(18.7%)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5> 참조).

표 5. 유행시기별 코로나19 헤드라인에 나타난 낙인 요소 사용 빈도

낙인 요소 N(%)	유행시기					합계	$\chi^2(df)$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4차 유행	5차 유행		
공포감 유발	106 (43.8)	600 (54.6)	398 (52.4)	424 (53.4)	332 (57.5)	1860 (53.6)	1.9(4)
라벨링	97 (40.1)	322 (29.3)	236 (31.0)	214 (27.0)	133 (23.1)	1002 (28.9)	59.2(4)***
책임귀인	29 (12.0)	162 (14.8)	119 (15.7)	144 (18.1)	108 (18.7)	562 (16.2)	6.5(4)
표시	10 (4.1)	14 (1.3)	7 (0.9)	12 (1.5)	4 (0.7)	47 (1.3)	23.3(4)***
합계	242	1098	760	794	577	3471	

\*  $p < .05$ . \*\*  $p < .01$ . \*\*\*  $p < .001$

### (1) 〈연구문제 2-1〉 유행시기별 공포감유발 사용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1〉에서는 낙인 요소 중 공포감유발 요소의 유행시기별 사용양상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1차 유행시기는 국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시기로, 정부는 “정 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01.26). 이 시기 공포감유발 표현의 주된 내용은 신종 감염병과 그 여파에 대한 우려 및 공포가 주를 이뤘으며, 바이러스 발원지로 보도된 중국 우한 지역에 대한 공포도 포함하 고 있었다(“우한 쇼크”, “중유학생 7만명 대거 입국 앞두고 대학가 우한폐렴 초비상”).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교인 중심의 집단 감염(2020년 2월 18일, 관련 감염 5213 명)이 발생한 2차 유행시기에는 정부 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되었다(2020년 3월 21일). 이 시기 공포감유발 요소가 다른 모든 시기 중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주된 내용 은 신천지 교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천지 대구교회서 슈퍼전파 발생”, “신천지 추가 감염 멈출 줄 모른다”).

3차 유행시기는 이태원 클럽 중심의 집단 감염(2020년 5월 7일, 관련 감염 271명)이 발생한 시기로 정부는 거리두기 강도를 생활 속 거리두기 수준으로 격하하고(2020년 5월 6일), 내수경제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여행주간(2020년 7월 1일~19일)을 지정했 다(이윤화, 2020.07.20). 이 시기 공포감유발 표현의 주요 내용은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관련 내용으로, “이태원發 열흘 만에 4차감염”, “이태원 쇼크 결국 5차까지 번졌 다”와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

4차 유행시기의 주요 사건으로는 사랑제일교회 중심 집단 감염(2020년 8월 12일, 관련 감염 1156명), 광화문 집회(2020년 8월 15일, 참여 2만명 추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2020년 8월 15일, 참여 2천명 추정)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를 유지하다가 수도권은 2단계(2020년 8월 16일)에서 2.5단계(2020년 8월 30일)까지 격상되었다. 4차 유행시기 공포감유발 표현의 주된 내용을 보면 교회와 광화문집회 중심의 집단 감염과 관련된 것이었다(“수도권 교회 선교회 7곳 무더기 감염”,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457명”, “광화문집회 참가자 60명 확진 하루새 3배로”).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한 논의가 오가던(2020년 12월 22일) 5차 유행시기에는 동부구치소 중심의 집단 감염이(2020년 11월 27일, 관련 감염 1,232명) 발생했으며, 이 연구에 포함된 유행시기 중 가장 많은 확진자(50,257명)와 사망자 수(933명)를 기록했다. 이 시기 공포감유발 표현의 주된 내용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감염과 이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127명 확진 천안, 인구 2배 대전 옥박”).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경우 2021년 상반기까지의 단일 시설 집단 감염 중 최대 규모이자(박철근, 2021.08.07) 이 시기 주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기와 다르게 관련 공포감유발은 소수에 그쳤다( $n=20/332$ ).

## (2) <연구문제 2-2> 유행시기별 라벨링 사용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느 집단/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전 유행시기에 걸쳐 주요 라벨링 대상이 된 집단은 개인(40.4%), 지역(14.7%), 종교집단(11.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교집단은 교회(56.9%)와 신천지(37.4%)가, 지역은 중국(45.9%)과 대구·경북(35.2%)이 주된 라벨링 대상이었다.

1차 유행시기 라벨링 대상은 주로 개인(53.7%)과 지역(38.9%)에 집중됐는데, 개인의 경우 확진자 대상의 라벨링이(“슈퍼전파자”), 지역 대상의 경우 바이러스 발원지 관련 라벨링이 등장했다(“중국폐렴”, “우한폐렴”). 1차 유행시기 개인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라벨링은 전체 라벨링 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대구·경북 지역 신천지 교인 중심의 집단 감염(2020년 2월 18일, 관련 감염 5213명)이 발생하고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초 시행(2020년 3월 21일)된 2차 유행시기, 라벨링 대상을 살펴보면 개인(40.6%), 지역(21.3%), 종교집단(16.1%)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지역의 경우 대구·경북이 59.5%를(“대구 코로나”), 종교집단의 경우 신천지가 76.8%를(“신천

지 슈퍼전파”) 구성하고 있었다. 개인의 경우 여전히 감염 환자 대상 라벨링 표현이 주를 이뤘다.

3차 유행시기 라벨링 대상은 개인(40.9%), 유흥시설(16.7%), 기업(10.1%)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 정부는 거리두기 강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낮췄으며(2020년 5월 6일), 이태원 클럽 중심의 집단 감염(2020년 5월 7일, 관련 감염 271명)이 발생하였다. 유흥시설에 대한 라벨링 빈도가 모든 시기 중 가장 높았던 3차 시기의 경우 이태원 클럽이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이태원 방문 확진자”), 물류센터와 리치웨이(기업) 관련 라벨링(“쿠방 물류센터 확진자”)과 개인 대상 라벨링 표현도(“정자3동 거주 수원 100번 확진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4차 유행시기는(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1단계(~2020년 8월 15일)에서 2단계(2020년 8월 16일), 2.5단계(2020년 8월 30일)로 격상), 사랑제일교회 중심 집단 감염(2020년 8월 12일, 관련 감염 1156명)과 광화문 집회(2020년 8월 15일, 참여 2만명 추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2020년 8월 15일, 참여 2천명 추정)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 해당 시기 라벨링 대상은 개인(35.8%), 종교집단(16.2%,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의료시설 및 집단(10.9%, “신촌세브란스 집단감염”)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모 집회가 발발했던 시기인 만큼 집회 관련 라벨링이 다른 시기보다 빈번히 나타났으나(8.7%), 종교집단(16.2%)이 주된 라벨링 대상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유행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기준 2.5단계까지 격상된(2020년 12월 8일) 후 유지되었고 국내 코로나19 백신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으며(2020년 12월 22일), K방역 홍보 메시지가 등장했다(주희연, 2021.01.06). 이 시기 동부구치소 중심의 집단 감염(2020년 11월 27일, 관련 감염 1232명)이 발생했고, 라벨링은 개인(36.2%), 공공시설(23.9%)에 집중됐다. 공공시설에 대한 라벨링은 모든 시기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동부구치소 관련 내용(“동부구치소 대구모 확진”)이 주를 이뤘다(〈표 6〉 참조).

표 6. 유행시기별 헤드라인에서 사용된 라벨링 집단 사용 빈도

라벨링 대상 N(%)	유행시기					합계	$\chi^2$ (df)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4차 유행	5차 유행		
개인	58 (53.7)	141 (40.6)	105 (40.9)	82 (35.8)	50 (36.2)	436 (40.4)	65.0(4)***
지역	42 (38.9)	74 (21.3)	18 (7.0)	13 (5.7)	12 (8.7)	159 (14.7)	165.0(4)***
종교집단	0 (0.0)	56 (16.1)	17 (6.6)	37 (16.2)	13 (9.4)	123 (11.4)	26.0(4)***
의료시설 및 집단	4 (3.7)	40 (11.5)	7 (2.7)	25 (10.9)	15 (10.9)	91 (8.4)	14.0(4)**
기업	4 (3.7)	24 (6.9)	26 (10.1)	24 (10.5)	5 (3.6)	83 (7.7)	13.3(4)*
공공시설	1 (0.9)	5 (1.4)	19 (7.4)	12 (5.2)	33 (23.9)	70 (6.5)	49.6(4)***
유흥시설	0 (0.0)	5 (1.4)	43 (16.7)	0 (0.0)	3 (2.2)	51 (4.7)	122.8(4)***
다중이용시설	0 (0.0)	1 (0.3)	19 (7.4)	9 (3.9)	4 (2.9)	33 (3.1)	32.3(4)***
집회	0 (0.0)	1 (0.3)	1 (0.4)	20 (8.7)	1 (0.7)	23 (2.1)	56.5(4)***
행정주체	0 (0.0)	0 (0.0)	1 (0.4)	3 (1.3)	0 (0.0)	4 (0.4)	7.3(4)
정당	0 (0.0)	0 (0.0)	0 (0.0)	2 (0.9)	0 (0.0)	2 (0.2)	7.0(4)
기타	0 (0.0)	1 (0.3)	0 (0.0)	2 (0.9)	1 (0.7)	4 (0.4)	2.6(4)
합계	108	347	257	229	138	1079	

\*  $p < .05$ . \*\*  $p < .01$ . \*\*\*  $p < .001$ .

(3) <연구문제 2-3> 유행시기별 책임귀인 사용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느 집단/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다른 낙인 요소와 달리 모든 유행시기에 걸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1차: 12.0%, 2차:

14.8%, 3차: 15.7%, 4차: 18.1%, 5차: 18.7%) 책임귀인의 주된 대상은 행정주체(27.6%), 개인(21.2%), 종교집단(20.2%)이 비슷한 비율로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차 유행시기 책임귀인 대상은 행정주체(42.0%), 지역(16.1%), 개인(12.9%) 순이었다. 이 시기는 국민 청원 등 여론의 압력에도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시기로(박동균, 2020) 부족한 방역 수준에 대해 정부 책임을 묻는 내용이 행정주체 대상 책임귀인의 주를 이뤘다(“또 뚫린 제3국 감염”, “시민들 불안한데 일본, 지자체, 확진자 동선 공개 엇박자”). 지역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중국 發 폐렴”), 개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향해(“22번 환자 광주전남 생활반경 넘어 지역사회 전파 우려”) 책임귀인이 사용되었다.

2차 유행시기는 대구·경북 지역 신천지 교인 관련 집단 감염(2020년 2월 18일, 관련 감염 5213명)이 발생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2020년 3월 21일)된 시기로, 책임귀인은 행정주체(29.2%), 개인(27.3%), 종교집단(24.9%)에 거의 동일한 비율로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행정주체의 경우 실제 코로나 상황과 동떨어진 정부 인식에 대한 지적이 등장했고(“주말새 확진 3배로 폭증 文대통령, 이제야 심각”, “정부 여당, 코로나 자화자찬 멈춰라”), 종교집단의 경우 신천지를 향한 귀인이 주를 이뤘다(“신천지 동선따라 전국 확산”, “전국에 퍼지는 신천지발 감염”). 개인의 경우 방역 수칙 위반 등의 책임귀인이 나타났다(“자가격리 어기고 직장 출근한 20대 불구속 입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강도가 격화된(2020년 5월 6일) 이후, 이태원 클럽 중심의 집단 감염(2020년 5월 7일, 관련 감염 271명)이 발생한 3차 유행시기의 책임귀인 대상은 개인(30.0%), 유흥시설(20.0%), 행정주체(17.5%) 순으로 나타났다. 유흥시설의 경우 이태원 클럽 및 방문자를 향한 책임귀인이 다수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기 방역 강도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낮추고 소비 활성화 명목으로 특별여행주간 지정(2020년 7월 1일~18일), 8대 분야 소비할인쿠폰을 제공한 행정주체의 경우(이윤화, 2020.07.20;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07.24) 전 시기 중 가장 낮은 빈도의 책임귀인 대상으로 나타났다.

4차 유행시기(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2020년 8월 16일)→2.5단계(2020년 8월 30일)→1단계(2020년 10월 12일) 주요 사건으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 감염(2020년 8월 12일, 관련 감염 1156명)과 광화문 집회(2020년 8월 15일, 참여 2만명 추정) 및 민노총 집회(2020년 8월 15일, 참여 2천명 추정)가 있었다. 해당 시기 책임귀인 대상은 종교집단(29.9%), 행정주체(20.4%), 개인(15.6%), 집회(12.9%) 순으로 조사되었

다. 종교집단의 경우 집단 감염 책임을 교회에 귀인하는 표현이 다수 확인되었고(“교회發 확진 증가에 검사자 2만명대로”), 행정주체인 정부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등장하였으며(“정부가 필요할 때, 코로나 검사 늘려 공포 조장 의심”) 특정 집회 참여자를 향한 귀인도 나타났다(“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신안 섬마을까지”).

5차 유행시기에는 감염 환자 수가 크게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기준 2.5단계까지 격상되었고(2020년 12월 8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가 늦어진다는 비판에 정부 발표가 있었던 시기다(2020년 12월 22일). 해당 시기에는 동부구치소(2020년 11월 27일, 관련 감염 1232명)와 종교 시설(2020년 12월 3일 BTJ열방센터 관련 감염 787명 / 2021년 1월 24일 IM선교회 관련 감염 497명)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시기 책임귀인 대상은 행정주체(41.4%), 개인(12.6%), 종교집단(11.7%)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주체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확보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으로 방역이 허술해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정부 낙관하다 백신 오판”). 한편, 이 시기 공공 교정시설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의 규모는 단일 시설 기준 이 시기 최대 규모였음에도(박철근, 2021.08.07) 이와 관련한 책임귀인 보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표 7〉 참조).

표 7. 유행시기별 헤드라인에서 사용된 책임귀인 집단 사용 빈도

책임귀인 대상 N(%)	유행시기					합계	$\chi^2(df)$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4차 유행	5차 유행		
행정주체	13 (42.0)	47 (29.2)	21 (17.5)	30 (20.4)	46 (41.4)	157 (27.6)	17.8(4)**
개인	4 (12.9)	44 (27.3)	36 (30.0)	23 (15.6)	14 (12.6)	121 (21.2)	10.0(4)*
종교집단	0 (0.0)	40 (24.9)	18 (15.0)	44 (29.9)	13 (11.7)	115 (20.2)	26.3(4)***
기업	2 (6.5)	11 (6.8)	12 (10.0)	4 (2.7)	2 (1.8)	31 (5.4)	8.2(4)
유흥시설	0 (0.0)	2 (1.2)	24 (20.0)	0 (0.0)	4 (3.6)	30 (5.3)	63.6(4)***
집회	0 (0.0)	1 (0.6)	2 (1.7)	19 (12.9)	5 (4.5)	27 (4.7)	39.5(4)***
지역	5 (16.1)	8 (5.0)	2 (1.7)	1 (0.7)	5 (4.5)	21 (3.7)	16.5(4)*

책임귀인 대상 N(%)	유행시기					합계	$\chi^2(df)$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4차 유행	5차 유행		
정당	1 (3.2)	3 (1.9)	0 (0.0)	8 (5.4)	8 (7.2)	20 (3.5)	14.0(4)**
의료시설 및 집단	2 (6.5)	6 (3.7)	2 (1.7)	9 (6.1)	1 (0.9)	20 (3.5)	8.6(4)
다중이용시설	0 (0.0)	1 (0.6)	2 (1.7)	7 (4.8)	7 (6.3)	17 (3.0)	12.9(4)**
공공시설	0 (0.0)	0 (0.0)	0 (0.0)	1 (0.7)	6 (5.4)	7 (1.2)	21.4(4)**
기타	3 (9.7)	0 (0.0)	0 (0.0)	1 (0.7)	0 (0.0)	4 (0.7)	35.8(4)***
합계	31	161	120	147	111	570	

\*  $p < .05$ . \*\*  $p < .01$ . \*\*\*  $p < .001$

#### (4) <연구문제 2-4> 유행시기별 표시 사용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4>에서는 유행시기별 표시 요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았다. 표시는 모든 유행시기에서 가장 적게 사용된 요소로, 전체 낙인 요소 중 1.3%를 차지했으며 ( $n=47/3471$ ), 다른 낙인 요소에 비해 유행시기별 증감의 폭이 크지 않았다. 표시 요소를 사용한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신체 변화나 코로나19 완치 이후 나타나는 신체적 후유증을 언급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시기별 표시의 예시로는 “콜록대는 의심 환자들 일반인과 뒤섞여 활보”(1기), “우한 폐렴 기침이나 신체 접촉으로 빠르게 확산”(1기), “29번 환자 5일부터 기침”(1기), “31번 환자 38.8도 고열”(2기), “발열 증세 제주 고3”(3기), “확진 직원 일부 열나는데도 출근”(4기), “후각 미각 상실 때도 검사받아야”(5기), “코로나 후 머리카락 우수수”(5기) 등이 있었다. 표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차 유행시기(4.1%)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2차 유행시기(1.3%)에서 3차 유행시기(0.9%)까지 감소한 뒤 4차 유행시기(1.5%)에 증가하고 5차 유행시기(0.7%)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5> 참조).



표 8. 유행시기별 책임귀인, 라벨링 대상 집단 상위 3곳

유행 시기	확진 수	사망 수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	낙인 대상 집단 상위 3곳	
1차	30	0	2020.01.03. 중국 등 해외 입국자 위주로 확진 2020.01.26. 대통령 “정부 믿고 과도한 불안 자제”	책임귀인	행정주체 > 지역 > 개인
			2020.01.27. 정부 “중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2020.02.12. 정부 “코로나19, 집단행사 무조건 취소할 필요 없어, 불안 떨치고 일상활동 하라”	라벨링	개인 > 지역 > 의료시설/기업
2차	10,774	254	2020.02.18.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2020.02.24. 정부 “중국입국금지 불허” 2020.03.17. 정부 “입국자 전체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2020.03.21. 사회적 거리두기 첫 시행	책임귀인	행정주체 > 개인 > 종교집단
				라벨링	개인 > 지역 > 종교집단
3차	3,856	51	2020.05.06. 생활 속 거리두기(1단계) 시행 2020.05.07.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2020.05.25.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2020.06.04. 리치웨이 기업 집단 감염 2020.06.28.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통일 3단계 구분제 시행 2020.07.01. 특별 여행주간 시행 2020.07.30. 8대 분야 할인 소비 쿠폰 제공	책임귀인	개인 > 유흥시설 > 행정주체
				라벨링	개인 > 유흥시설 > 기업
4차	13,280	182	2020.08.12. 사랑제일교회 중심의 집단 감염 2020.08.15. 광화문 보수집회 2020.08.15. 민주노총 집회 2020.08.1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020.08.3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2020.10.1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2020.10.12. 정부 “거리두기 하향 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신감”	책임귀인	종교집단 > 행정주체 > 개인
				라벨링	개인 > 종교집단 > 의료시설
5차	50,257	933	2020.11.20. 노랑진 임용학원 집단 감염 2020.11.2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020.11.25. 강서구 댄스 교습학원 집단 감염 2020.11.27. 동부구청소 집단 감염 2020.12.1.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2020.12.03. BTJ 열방센터 집단 감염 2020.12.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책임귀인	행정주체 > 개인 > 종교집단
				라벨링	개인 > 공공시설 > 의료시설

		2020.12.24. 정부 “우리도 늦지 않게 코로나 백신 접종 준비 잘 하고 있다”		
		2020.12.24. IM선교회 및 산하 교육시설 집단 감염		
		2021.01.06. 문대통령, 경제 방역 자화지찬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Note. 확진 수, 사망 수 질병관리청(2020) 인용

#### 4) <연구문제 3>의 결과: 코로나19 보도 헤드라인에 나타난 낙인 양상은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감 추이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확진자, 사망자 증감 추이에 따른 낙인 요소(책임귀인, 표시, 라벨링, 공포감유발)사용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질병관리청(2022)에서 제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 발생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유행시기별 사망자와 확진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확진 환자와 사망자의 수는 유사한 추이를 보였는데, 2차 유행 시기에 증가했다가 3차 유행시기에 감소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2> 참조).

한편, 유행시기별 낙인 요소의 사용 빈도는 2차 유행시기에 최고치(31.5%, n=1098/3471)를 기록하고 3차 유행시기에 감소(22.0%, n=760/3471)하다, 4차 유행시기에 소폭 증가(22.8%, n=794/3471) 후, 5차 유행시기에 다시 감소(16.7%, n=577/3471)하는 패턴을 보였다(<표 5> 참조). 즉, 3차 유행시기까지 확진자와 사망자 양상과 낙인 요소의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고, 4차 유행시기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큰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확진자: 3,856→13,280, 사망자: 51→182), 낙인 요소는 소폭 증가했다(낙인: 760→794). 또한,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5차 유행시기(확진자: 13,280→50,527, 사망자: 182→933)에는 오히려 낙인 요소가 대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낙인: 794→577). 이를 요소별로 살펴보면 책임귀인과 표시, 공포감유발의 증감 추이는 확진자 및 사망자 수의 증감 추이를 4차 유행시기까지 따랐으나,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던 5차 유행시기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라벨링의 경우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3차 유행시기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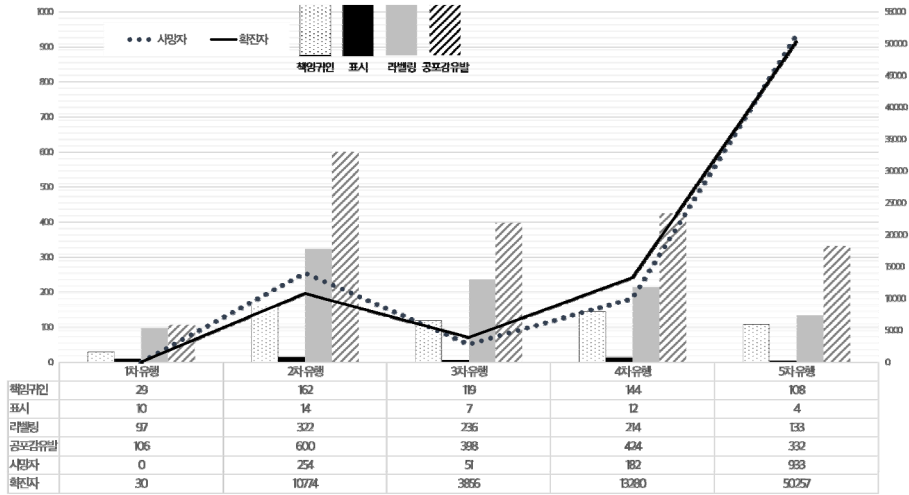


그림 2. 유행시기별 확진자, 사망자 수와 낙인 표현 사용 빈도

##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 첫 1년(2019.12.~2021.1.)을 대상으로 주요 일간지의 코로나 19 보도 헤드라인에 나타난 낙인요소를 내용 분석하였다. 특히, 낙인 커뮤니케이션 모델(Model of Stigma Communication, MSC)에서 제시하는 표시, 라벨링, 책임귀인, 공포감 유발의 네 가지 낙인 메시지 요소를 주요 분석 틀로 적용하여 유행 시기별 낙인 요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요약과 함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발생 첫 해의 관련 뉴스 헤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헤드라인 2/3에서 낙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 유행시기에 걸쳐 꾸준히 60% 이상의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는 정신질환 보도 속에서 나타난 낙인 31.9%(백혜진·조혜진·김정현, 2017)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감염병 보도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낙인 표현은 감염자, 감염병에 대한 공중의 분노와 공포, 혐오를 유발하여 사회 분열과 방역 정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김대현, 2022), 감염에서 회복된 후에도 감염자 및 가족들까지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 낙인의 장기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김대현, 2022; Muhidin, Vizheh & Moghadam, 2020) 사회적 모니터링과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문제이다. 과거, 사스, 신종플루 등 신종 감염병을 겪으며 감염병 보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절감한 언론과 학회는 2012년 감염병 보도준칙을 제정하였고, 코로나19 보도에서 이러한 보도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자, 한국기자협회가 감염병 보도준칙을 다듬어 다시 발표(2020.04.28)하기도 하였다. 일련의 보도준칙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감염인 신상에 관한 보도의 경우 차별이나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하고, 환자 및 감염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보도준칙이 감염병 보도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다수였고(박주현, 2020; 송해룡·조항민, 2015; 유선옥 외, 2010; 허용강 외, 2015; Beaudoin, 2007),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감염병 보도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회재난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보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부터 4는 ‘재난 등에 대한 방송’ 심의에 관한 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재난 방송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여라, 2020). 김여라(2020)는 현재의 방송심의 규정에서는 감염병이 재난의 한 종류로 포함되고는 있지만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기상 재난을 별도로 명시한 것과 같이 감염병 관련 조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보도준칙을 통한 언론사의 자율규제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보도에서 사용된 낙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포감유발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됐고, 다음으로 라벨링, 책임귀인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포감유발, 라벨링, 책임귀인은 과거 감염병 보도에서도 낙인 기재로 자주 사용된 요소로(Smith & Hughes, 2014), 감염병 보도가 여전히 과학적, 객관적 보도보다 공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보도경향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허용강 외, 2015) 추측해 볼 수 있다.

먼저, 공포감유발 표현은 1차에 가장 높게 발견되었고 2차에서 5차 유행시기까지 확진자, 사망자 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꾸준히 50%이상의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인식조사(유명순,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뉴스를 접한 후 국민들은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공포감유발 표현의 빈번한 사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헤드라인에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폐닉’, ‘대혼란’, ‘창궐’ 등 과장된 표현을 쓰지 말라고 명시한 감염병보도준칙이 여전히 선언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을(이유진, 2021) 확인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라벨링이나 표시는 1차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 반면, 책임귀인은 1차에서 5차시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전 시기에 걸쳐 행정주체, 개인, 종교집단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책임귀인 대상으로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개인과 특정 집단에게 질병확산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책임귀인 대상은 유행시기별 주요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외의 경우도 존재했다. 2차 유행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3월 21일)이전에 발생한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의 경우(2월 18일) 행정주체와 개인, 종교집단이 비슷한 비율로 책임귀인 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제로 이 시기 모든 언론에서 신천지를 타깃으로 한 ‘마녀사냥식’ 보도가 빈번했으나(한준형 · 설동훈, 2022), 결국 신천지에 대한 방역방해 무죄가 선고되며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에 예배당에 모여 일상생활(예배)을 한 것이 왜 질병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보도된 것인지 언론은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보도 양상은 3차 시기 이태원 클럽 관련 보도에서도 나타났다.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은(5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준으로(유형시설 운영 중단 해제) 격하한(5월 6일) 시점에서 발생했고, 당시 정부는 내수경제 활성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특별여행주관을 지정하고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여행과 소비를 적극 장려했다(이윤화, 2020.07.20). 그런데 클럽 방문자에게 과도한 책임귀인이 가해진 반면, 일상 생활을 강제한 행정주체는 전 유행시기 중 가장 낮은 귀인 대상으로 보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범죄화하는 낙인이 감염의 구조적 요인을 은폐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추지현, 2021, 김보영, 2021.05.10에서 재인용), 방역 및 출입국 정책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나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당사자만을 낙인찍고, 범죄화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4차 시기의 경우, 사랑제일교회(8월 12일, 관련 감염 1156명), 광화문 집회(8월 15일, 참여 2만명 추정), 민노총 집회(8월 15일, 참여 2천명 추정) 등 다양한 감염 이슈가 잇따랐는데, 책임귀인 대상으로 보도된 주요 대상은 종교집단에 집중됐고 집회 관련은 소수에 불과했다. 최근 빅데이터로 온라인 여론을 분석한 결과 한국교회의 주요 연관어로, ‘방역수칙 위반’ ‘코로나 19 집단감염’의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는(김현성, 2021.12.30) 코로나 19 보도에 나타난 낙인양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책임귀인 프레임이 많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는데(박주현, 2020; 표시영, 2020), 책임귀인

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로 번지게 하거나 불안을 극복할 희생양을 찾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고(이성진, 2020.03.03), 더 나아가 감염자에 대한 차별, 괴롭힘, 혐오 범죄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Riyasad, 2020) 주의가 요구된다. 김대현(2022)은 책임귀인에 의한 낙인이 결국 사회 분열, 검진 기피 등 방역 정책에 궁극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라벨링의 주요 대상은 전시기에 걸쳐 개인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라벨링은 유행시기에 따라 특징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향한 라벨링이 지속되었다. 우선 1차 유행시기의 라벨링은 확진자 대상의 라벨링이 중심이었는데 코로나19의 발생 초기였기 때문에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라벨링이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차 유행시기,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이 일어났음에도 개인을 향한 라벨링이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이 때 신천지 신도라고 밝혀진 31명 확진자가 증상 발현 전후 교회를 방문했지만 동선을 은폐하여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이현석, 2020.02.20) 개인을 향한 라벨링을 시작으로 종교 집단에 대한 라벨링으로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은폐해 방역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50대 신천지 교인에 대한 2심 판결은 결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윤선영, 2021.10.19)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감염에 대한 라벨링은 법적 책임과 ‘국가의 처벌의지’를 표명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변진경, 2020.05.26)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3차 유행시기에서의 라벨링은 개인, 유흥시설, 기업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는데 유흥시설이 라벨링 대상이 된 것은 전 시기에 걸쳐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발표한 직후(5월 6일)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이(5월 7일) 발생하면서 클럽 방문자의 감염과 ‘코로나19 낙인에 게이 낙인’까지(BBC 코리아, 2020.05.08) 더해졌다. 당시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66명 확진자의 동선 중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성소수자라는 과도한 개인 정보가 부각되어 보도되면서 감염병과 무관한 불명확한 정보들이 개인 라벨링을 조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4차 시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던 시기였는데 라벨링은 개인, 종교집단, 의료시설 및 집단으로 나타났다. 라벨링이 확진자나 종교 집단이 아닌 의료시설과 의료집단이 대상이 된 것은 특이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이나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의료진이라는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위험한 ‘감염원’으로 인식(장예지, 2021.07.15)되어 라벨링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라벨링은 메르

스와 사스 등의 감염병 분석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라벨링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개인 성별, 직업, 종교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확진자 라벨이 붙여졌다(박미정, 2016). 확진자에 대한 라벨링은 지역사회나 일터 등으로부터 차별을 불러오고(김민아·성지민, 2022), 나아가 확진에 대한 자책, 우울, 불면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삶의 질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Campo-Arias, Pedrozo-Pupo & Caballero-Domínguez, 2022)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매 감염병 때마다 당면해온 언론의 낙인화 문제를(안중주, 2020.03.22) 1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을 통해 분석해 낙인 양상의 스펙트럼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특정 대상에게 낙인 요소가 집중되는 등 코로나19 보도의 낙인화 문제가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것 이상으로 심각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가 추후 우리 사회가 또다시 맞이하게 될 감염병 상황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감염병 보도 관련 법률 조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김여라, 2020)하는 등 기존의 규제를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첫 1년의 시간을 특정해 표본을 수집, 분석하였다. 코로나19가 2022년 11월 기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모든 유행시기의 언론 보도 데이터를 토픽모델링, 네트워크분석 등의 기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안정화 시기에는 언론 보도 속 낙인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코로나19 감염 초기 결과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언론 보도 속 코로나19 낙인의 더 면밀한 진단을 위해 낙인이 언론사별, 낙인 요소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길곤·김범 (2020).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슈의 변화와 경험적 근거 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8, 1~29.
- 고정애 (2020, 8월 21일). 여권의 광화문집회 공격, 그날 종로엔 민노총도 있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53340#home>
- 곽은아·한동섭 (2017). 환경위험커뮤니케이션—중국 신문의 미세먼지 보도 프레임 연구. *Crisisonomy*, 13(12), 1~16.
- 구민구·노기섭 (2022). 딥러닝을 활용한 코로나 19 이후 종교 인식 변화 분석.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32(1), 13~19.
- 국제엠네스티 (2021). *미국, 코로나19 증오 범죄 방지법 발효*. <https://amnesty.or.kr/41628/>
- 권나현·최윤형 (2022). 코로나19 확산 시기별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위기 커뮤니케이션 분석: 구조적 토픽모델링과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광고 PR 실학연구*, 15(2), 7~41.
- 김규리·오찬희·주영준 (2022). 트위터에서의 COVID-19와 관련된 반시민성 주제 탐색: 혐오 대상 및 키워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9(1), 331~350.
- 김대현 (2022). COVID-19 초기 유행 환자에서 회복후스트레스, 우울, 불안, 낙인 정도. *제명의 대학술지*, 41(1), 38.
- 김동규 (2001). 제3주제: 한국 언론의 위기보도, 그 실상과 과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4~41.
- 김민아·성지민 (2022). 코로나 19 생존자의 직장 내 낙인 및 대처 경험. *보건사회연구*, 42(3), 7~29.
- 김보영 (2021, 5월 10일). 구조적 문제 은폐한 채 특정 집단 낙인찍는 ‘감염병의 범죄화’.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6>
- 김서정 (2021, 2월 26일). “코로나19 아시안 혐오 멈춰주세요” 세계 곳곳 피해 호소.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27299>
- 김수진·유선욱 (2021). 질병 낙인과 낙인 관리 커뮤니케이션이 건강소통의지에 미치는 영향: 비만 이슈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5(4), 1~30.
- 김영옥 (2014). *위협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Books.
- 김영옥·이현승·장유진·이혜진 (2015). 언론은 미세먼지 위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미세먼지 위험보도 프레임과 정보원 분석. *한국언론학보*, 59(2), 121~154.



- 김영옥·함승경 (2016). 내러티브 반응 과정과 냄비 성향이 낙인에 미치는 효과: 메르스 (MERS) 위험을 중심으로 한 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론*, 12(4), 58~100.
- 김창숙·홍원식 (2021). 질병재난에 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과 귀인 특성 연구: 코로나 19 ‘대구 신천지’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40(3), 245~286.
- 김태중 (2020).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언론 보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457~466.
- 김현성 (2021, 12월 30일). 빅데이터로 본 2021년 한국교회 4대 이슈는? *뉴스파워*, <http://www.newspower.co.kr/51196>
- 김혜란 (2020, 2월 12일). 남대문시장 찾은 文대통령 “코로나 불안 떨치고 일상활동을” 소비진작 독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212/99659931/2>
- 김혜원·양혜진 (2021). HIV 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에 대한 낙인 의사소통 영향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7(2), 163~174.
- 노지원 (2020, 2월 13일). 한국 언론 ‘코로나19’ 보도 어땠나...“과장·추측성·생중계식 보도 안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8127.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8127.html)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 1월 26일). 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정부 믿고 과도한 불안 갖지 마시길”.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868558&cateId=subject>
- 박동균 (2020).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관리의 문제점과 교훈. *한국치안행정논집*, 17(3), 127~150.
- 박미정 (2016). 감염병 대응관련 언론 보도와 개인정보보호. *언론과법*, 15(3), 289~316.
- 박성진 (2021). 코로나 (Covid-19) 확진자에 대한 폭력의 양상과 의미: 코로나 발생 초기 상황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9(1), 103~128.
- 박정의 (2003). 의학보도가 공중의 인지·감성·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7(5), 194~221.
- 박종민·조의현·곽은경 (2008). 의약품광고의 언어학적 특징: 1920 년에서 2005 년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의약품광고의 헤드라인과 서브헤드라인 분석. *한국언론학보*, 52(4), 50~80.
- 박주현 (2020). 언론의 이념성향에 따른 ‘코로나19’ 보도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64(4), 40~85.
- 박준홍·백지혜·이지나·정희선 (2021).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본 소수자에 대한 사회공간적 배제: 이태원 클럽 감염을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55(2), 137~154.

- 박철근 (2021, 8월 7일). 집단감염 증가세...역대 최악의 집단감염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5686629145024&mediaCodeNo=257>
- 박희봉·이연수·이해수 (2021). 과학적 불확실성과 공영방송, 재난의 공론장: COVID-19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5(1), 71~114.
- 박희진·김민선·김세희·송가람 (2021). 성인들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질 변화, 코로나-19 불안의 관계: 지각된 상황 통제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3, 39~62.
- 배정환 (2021). 코로나 시대,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범죄: 인종주의 담론과 사회 통제에 관한 논의. *경찰학연구*, 21(3), 183~208.
- 백혜진·조혜진·김정현 (2017). 정신질환의 낙인과 귀인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한국언론학보*, 61(4), 7~43.
- 변진경 (2020, 5월 26일). '확진'도 무섭지만 '낙인'은 더 무서워. *시스/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82>
- 서보경·권미란·나영정·손문수·이인규 (2020). 한국의 HIV 낙인과 장기 요양 위기. *비판사회정체*, (67), 71~111.
- 손달임 (2020). 코로나 19 관련 뉴스 보도의 언어 분석-헤드라인에 반영된 공포와 혐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1), 137~166.
- 손영준·홍주현 (2018). TV 의 성범죄보도 연구: 뉴스의 주목, 정보 공개, 귀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2(3), 31~68.
- 송경화 (2020, 5월 11일). 일부 언론 '성소수자 혐오' 보도, 방역 방해하고 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44308.html>
- 신진욱 (2007). 민주화 이후의 공론장과 사회갈등: 1993 년~2006 년 [조선일보] 와 [한겨레신문] 의 헤드라인 뉴스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사회학*, 41(1), 57~93.
- 심정원·김현정·김운한 (2020). 언론 보도에 나타난 정신건강 연관어의 맥락 및 프레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고연구*, (124), 128~163.
- 안중주 (2003). 사스와 에이즈, 그리고 한국 언론. *레드리본*, 53, 20~21.
- 안중주 (2020, 3월 2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흑사병 '마녀사냥' 과 본질은 같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3621.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3621.html)
- 양문석·김동준 (2008, 1월). *신문산업관련자료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신문발전위원회.
- 양정은 (2015). 국내 일간지의 식품위험 보도에 대한 연구: 지난 10 년간의 보도 양상과 헤드라인의 낙인 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5(3), 131~180.

- 우미원·이중윤·전종우 (2021). 종합적 사고경향이 코로나19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낙인효과.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9(1), 197~218.
- 유명순 (2020).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행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pp. 113~124.
- 유선옥·신호창·노형신·조성은 (2014). 결핵에 대한 낙인과 발병 공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건강신념요인, 감정 및 지식의 영향력 및 연령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103), 214~262.
- 유홍식 (2009). 기사제목과 예시가 수용자의 뉴스가치 평가와 이슈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3(5), 176~198.
- 윤선영 (2021, 10월 19일). 동선 은폐한 신천지 확진자, 2심서 유죄로 뒤집힌 이유. *서울경제신문*,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SVPEJ1F>
- 윤인경 (2020, 5월 26일). 코로나19: 혐오로 변진 이태원발 집단감염...성소수자 김 씨의 이야기. *BBC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803935>
- 이귀옥 (2015). 언론, 정보전달자 넘어 감시견 역할 다해야. *관훈저널*, (136), 29~38.
- 이민규 (2011). 재난 보도 어떻게 해야 하나: 한·미·일 재난보도 비교와 재난보도 원칙을 중심으로. *관훈저널*, (119), 11~17.
- 이서현·진명지·최낙진 (2020). 지방정부의 보도 자료는 언론 보도에 어떻게 활용되었나? 제주 지역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4(6), 1~32.
- 이성주 (2003). '사스'와 보도. *관훈저널*, (87), 158~166.
- 이완 (2020). 코로나19, 사회적 낙인과 회복방안. *세계인권도시포럼, 2020 차별금지 회의*. [http://www.whrcf.org/bbs/board.php?bo\\_table=MeetingData&wr\\_id=324&sca=2020&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이완&sop=and](http://www.whrcf.org/bbs/board.php?bo_table=MeetingData&wr_id=324&sca=2020&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이완&sop=and)
- 이완수 (2021). 코로나19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커뮤니케이션학과 행동과학의 통합 적용. *커뮤니케이션 이론*, 17(3), 306~375.
- 이유진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초기 보도를 통해 본 국내 감염병 보도 경향 분석: '감염병 보도준칙' 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운화 (2020, 7월 12일). 호텔업계, '특별여행주간' 잡아라..."코로나19 타격 회복 기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90806625833864&mediaCodeNo=257>
- 이은혜 (2021). *코로나는 살아있다*. 북앤피플.
- 이재호 (2021, 3월 21일).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 #StopAsianHate 운동 '확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7490.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7490.html)

- 이종민 (2020, 8월 19일). 광화문 집회 2만명 ‘오리무중’...지역감염 ‘시한폭탄’ 우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view/20200818524422>
- 이준호 (2015). 헤드라인 저널리즘: 신문과 포털 기사제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9(1), 249~280.
- 이하나·안순태 (2013). 자살예방뉴스의 낙인(stigma) 요소에 대한 분석. *한국언론학보*, 57(4), 27~47.
- 이해나 (2020, 1월 20일). 국내 '우한 폐렴' 첫 확진자 발생...중국인 여성. *헬스조선*,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0/2020012001990.html](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0/2020012001990.html)
- 이현석 (2020, 2월 20일). 대구 신천지교회 코로나19 슈퍼전파 첫 사례, 은폐도 문제. *포커스투데이*, <http://www.ifocus.kr/news/articleView.html?idxno=189074>
- 이희영·정다울·정성조 (2021). 민주적 방역, 혹은 권리 없는 자들과의 협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45, 272~314.
- 장예지 (2021, 7월 15일). K-방역 주역 의료진들 영광은 없고 상처와 고독만 남았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704.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704.html)
- 장현은 (2020, 5월 2일). 국민 절반 “정부 방역조치 신뢰 못해...코로나 1~2년 더 갈 것”.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34877.html>
- 정대연 (2020, 5월 3일). 정부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고강도 거리 두기 45일 만에 ‘해제’.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00503224005#c2b>
- 정석준 (2020, 6월 19일). [코로나가 바꾼 대한민국] ⑭ 감염보다 낙인이 더 두려워요. *이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8152920634>
- 정성조 (2022, 8월 12일). [2보]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형량 등은 유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2051551004>
- 주성재·김찬호 (2021). 지명의 역 브랜드 가치-지명 낙인 개념의 도입. *대한지리학회지*, 56(4), 357~370.
- 주희연 (2021, 1월 6일). 文대통령, 경제·방역 자화자찬하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06/RQTEGL4N6NDFZJTTQQA27M2XY/>
- 진나영·정정주 (2018). 한국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내외 언론보도 의미망 비교연구. *언론과학연구*, 18(2), 222~262.
- 질병관리청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례브리핑*. URL:[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6&CONT](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6&CONT)

\_SEQ=362778&SEARCHKEY=TITLE&SEARCHVALUE=%EC%BD%94%EB%A1%9C%EB%82%98

질병관리청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례브리핑*. URL: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6&CONT\\_SEQ=362865&SEARCHKEY=TITLE&SEARCHVALUE=%EC%BD%94%EB%A1%9C%EB%82%98](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6&CONT_SEQ=362865&SEARCHKEY=TITLE&SEARCHVALUE=%EC%BD%94%EB%A1%9C%EB%82%98)

질병관리청 (20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URL: [https://ncov.kdca.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1&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https://ncov.kdca.go.kr/bdBoardList_Real.do?brdId=1&brdGubun=11&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차채영·왕위시양·이종혁 (2022). 코로나 19 보도와 정파적 의제설정: 토픽모델링과 설문조사 연결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1), 86~98.

최경준 (2020, 7월 1일). 코로나보다 무섭다는 '코로나 낙인', 감염 책임은 누구에게?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489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4893)

최영·박창신·고민경 (2010). 온라인 뉴스의 제목달기 분석: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헤드라인 특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8(1), 115~140.

최윤희·신경아 (2012). 식품위기 위험 보도의 특징 분석: 멜라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4(2), 207~241.

최혜인 (2022, 8월 12일). [이슈in] 신천지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가 남긴 과제... "마녀사냥·희생양 만들기 그만". *천지일보*, <https://www.newscj.com/article/20220812580513>

표시영 (2020). 한국 공영방송의 '코로나 19' 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 KBS <뉴스 9>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112~122.

표시영·정지영 (2021). 감염병과 혐오의 팬데믹 속 언론의 자화상: 코로나 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는 '혐오 조장 표현'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언론학보*, 65(2), 286~329.

프라마·데반잔 (2020). "내재된 두려움": COVID-19 와 인도의 사회적 낙인·타자화.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겨울), 23~36.

한국기자협회 (2020). *감염병보도준칙*. URL: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2021 언론수용자 조사*. URL: [https://www.kpf.or.kr/front/research/consumerDetail.do?miv\\_pageNo=&miv\\_pageSize=&total\\_cnt=&LIST](https://www.kpf.or.kr/front/research/consumerDetail.do?miv_pageNo=&miv_pageSize=&total_cnt=&LIST)

- OP=&mode=W&seq=592381&link\_g\_topmenu\_id=&link\_g\_submenu\_id=&link\_g\_homepage=F&reg\_stadt=&reg\_enddt=&searchkey=all1&searchtxt=
- 한준형·설동훈 (2022). 낙인찍힌 사람들의 행동 전략: 신천지 교인 사례 연구. *지역과 세계 (구 사회과학연구)*, 46(1), 231~269.
- 함승경 (2019).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과 재난 유형이 공중 반응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비난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3), 277~321.
- 함승경·김혜정·김영옥 (2021). 코로나19 언론 보도 경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슈 주기 및 언론사 정치적 지향에 따른 주제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적용. *한국언론학보*, 65(1), 148~189.
- 허용강·차수연·서필교·김소영·백혜진 (2015). 감염병 보도 지침에 따른 에볼라 바이러스 언론보도 내용분석: 국내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12, 75~113.
- 황상의 (2004). [사스, 끝나지 않는 전염병의 공포] 21세기 팬데믹의 경고, 사스. *중등우리교육*, 29~31.
- 황현규 (2020, 5월 12일). “요즘 거길 누가 가나요?”...이태원 상권의 몰락. *이데일리*, [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374326625768264&utm\\_source](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374326625768264&utm_source)
- BBC코리아 (2020, 3월 4일). 코로나19: 신상털이와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확진자. *BBC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733612>
- BBC코리아 (2020, 5월 8일). 코로나19 낙인에 게이 낙인, 이태원 클럽 기사에 두번 우는 성소수자들. *BBC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52586331>
- Boin, A., Stern, E., & Sundelius, B. (2016). *The politics of crisis management: Public leadership under press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po-Arias, A., Caballero-Domínguez, C. C., & Pedrozo-Pupo, J. C. (2022). Dimensionality of the attitude toward COVID-19 vaccines scale in colombian adults: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and Wellbeing*, 6(2), 1950~1956.
- Corrigan, P. (2000). Mental health stigma as social attribu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methods and attitude chang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7(1), 48~67.
- Corrigan, P.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625.

- Demirtaş–Madran, H. A. (2020). Exploring the motivation behind discrimination and stigmatization related to COVID–19: A social psychological discussion based on the main theoretical explanations. *Frontiers in Psychology, 11*, 569528.
- Goffman, E. (2009).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Simon and Schuster.
- Hayes, A. F., & Krippendorff, K. (2007). Answering the call for a standard reliability measure for coding data.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1*(1), 77~89.
- Jones, D. (1993). Environmental hazards: The challenge of change: Environmental hazards in the 1990s: Problems, paradigms and prospects. *Geography, 78*(2), 161~165.
- Kumble, S., & Diddi, P. (2021). Twitter conversations about COVID–19 during pre–pandemic period: Stigma and information format cues. *Stigma and Health*.
- Ledford, V., Lim, J. R., Namkoong, K., Chen, J., & Qin, Y. (2021). The influence of stigmatizing messages on danger appraisal: Examining the model of stigma communication for opioid–related stigma, policy support, and related outcomes. *Health Communication, 1*~13.
- Li, Y., Twersky, S., Ignace, K., Zhao, M., Purandare, R., Bennett–Jones, B., & Weaver, S. R. (2020). Constructing and communicating COVID–19 stigma on Twitter: A content analysis of tweets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COVID–19 outbreak.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8), 6847.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36*~385.
- Lombard, M., Snyder–Duch, J., & Bracken, C. C. (2002). Content analysis in mass communication: Assessment and reporting of intercoder reliabil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8*(4), 587~604.
- Muhidin, S., Moghadam, Z. B., & Vizheh, M. (2020). Analysis of maternal coronavirus infections and neonates born to mothers with 2019–nCoV; A systematic review. *Archives of Academic Emergency Medicine, 8*(1).
- Quarantelli, E. L. (Ed.). (1998). *What is a disaster?: Perspectives on the question*. Psychology Press.
- Riffe, D., Aust, C. F., & Lacy, S. R. (1993). The effectiveness of random, consecutive

- day and constructed week sampling in newspaper content analysis, *Journalism Quarterly*, 70(1), 133~139.
- Smith, R. A. (2007). Language of the lost: An explication of stigma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heory*, 17(4), 462~485.
- Smith, R. A. (2011). Stigma, communication, and health.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health communication* (pp. 480~493). Routledge.
- Smith, R. A. (2012). An experimental test of stigma communication content with a hypothetical infectious disease alert, *Communication Monographs*, 79(4), 522~538.
- Smith, R. A., & Hughes, D. (2014). Infectious disease stigmas: Maladaptive in modern society, *Communication Studies*, 65(2), 132~138.
- Stop AAPI Hate. (2021, March 16). 2020–2021 national report, *Stop AAPI Hate*, <https://stopaapihate.org/2020-2021-national-report/>
- Thomas, T., Wilson, A., Tonkin, E., Miller, E. R., & Ward, P. R. (2020). How the media places responsibility for the COVID–19 pandemic—An Australian media analysis, *Frontiers in Public Health*, 8, 483.
- WHO. (2020). *A guide to preventing and addressing social stigma associated with COVID–19*. URL: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a-guide-to-preventing-and-addressing-social-stigma-associated-with-covid-19>
- ZENG, S. (2021). *코로나 19 관련 가시성과 책임 보도가 감정과 낙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논문투고일: 2022년 11월 30일

논문심사일: 2023년 01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01월 25일



## Abstract

# Stigma Scarier than Infection? Analysis of Stigma Patterns in COVID-19 Headlines by Epidemic Period

**JunHyeok Oh\***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at Hanyang University

**BoYoon Lee\*\***

Master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MiYeon Choi\*\*\***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at Hanyang University

**YoonHyeung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at Hanyang University

According to the Korean Social trends(2020), it was seen that majority of people feared the stigma of getting infected with COVID-19 more than the fear of being infected. This study analyzes the headlines of news reports of major daily newspapers during the first year of outbreak. Results showed that 66.5% of the headlines analyzed in this study used expressions associated with stigma, and this pattern appeared around 60% through the entire epidemic period. Most frequently used stigma factors were Peril(53.6%), Labeling(28.9%), Responsibility(16.2%), and Mark(1.3%). In particular, the patterns of stigmatization related to COVID-19 were concentrated on specific groups(e.g., Shincheonji, Itaewon, churches)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xts such as changes in the overall quarantine policy and government's message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Stigma • COVID-19 • Model of Stigma Communication •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 Media • Quarantine policy

---

\* First Author, jhyeok@hanyang.ac.kr

\*\* Co-Author, dlclud2012@naver.com

\*\*\* Co-Author, mychoi83@hanyang.ac.kr

\*\*\*\* Corresponding Author, yoonhyeung@hanyang.ac.kr